‘찾아가고 싶은 봄 섬-동물섬’ 부안 위도

행안부, 봄 여행 주제 선정 ‘봄 섬 방문 인증 이벤트’ 등 진행… 계절별 여행하기 좋은 섬 소개 예정

섬 모양이 고슴도치를 닮은 부안군 ‘위도’가 동물을 좋아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인 찾아가고 싶은 봄 섬-동물섬으로 선정됐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부터 섬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선정해 오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에 올 봄 여행 주제인 섬에서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섬’으로 전북 부안군 위도가 최근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위도는 격포에서 10㎞ 떨어진 섬으로 섬의 모습이 고슴도치와 비슷해 고슴도치 위(蝟)자를 써서 위도라 명명됐다.

섬 이름을 특화시켜 섬 요소요소에 고슴도치 조형물, 위도 해수욕장 주변의 수선화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상사화, 위도띠뱃놀이 등을 인정 받아 ‘동물섬’으로 꼽혔다.

위도에 대한 자세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 누리 소통망(SNS)과 한국섬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섬 홍보 누리 소통망(SNS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What.섬’)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품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봄 섬을 방문해 인증하거나, 섬 홍보 누리 소통망(What.섬) 팔로우 및 소문내기 인증을 하면 아이패드 등 경품이 주어지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는 섬 정책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사계절마다 어울리는 섬 여행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이번 봄 섬에 이어 6월부터 여름 섬, 9월 가을 섬, 12월 겨울 섬 등 계절별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정해 소개할 예정이며, 섬 한달살이 체험 등 참여 행사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부안 위도.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가정의 달인 5월과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권해드린다”며 “여름 섬 등 계절별 찾아가고 싶은 섬에도 전북도 섬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스피릿 춘향 · 몽룡 파이터’ 성료

춘향제 기간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열려… 대상 ‘보니타’

남원시는 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남원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해 제92회 춘향제 기간 열린 ‘스피릿 춘향·몽룡 파이터’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평했다.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촌마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댄스 배틀을 펼쳐 코로나19로 무대가 그리웠던 청소년들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선사했으며, 대상에는 보니타(익산), 최우수상은 와이원(대구), 우수상에는 투나(남원)가 선정되었다.

이번 경연에는 지난 해 케이블채널(Mnet)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에 출연했던 에이치(H)도 초대되어 7일 경연대회 특별 심사와 축하공연을, 8일에는 본선진출 팀과 특별공연 및 랜덤플레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참가자는 물론 관람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춘향제를 맞아 개최된 스피릿 춘향·몽룡 파이터는 춤의 고장 남원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성공적인 행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남원시는 앞으로도 전통 춤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댄스까지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갈 문화 부흥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위한 국악나들이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5월 매주(토)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 보따리〉 공연을 개최한다.

21일 숲속음악대 덩따쿵은 여우, 토끼, 꾀꼬리, 곰, 늑대로 구성된 숲속음악대 ‘덩따쿵’이 호랑이 생일잔치에 초대 받아 멋진 국악 연주를 들려주는 국악 체험극이며, 공연 진행 중 아이들이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도 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국악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한층 더 높여줄 공연이다.

한편, 국립무형유산원은 5월 국립민속국악원의 어린이 공연 시간에 맞춰 야외 민속놀이 중심으로 전래놀이(투호,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버나놀이, 활쏘기 등)와 만들기(바람개비, 부채, 제기, 연, 팽이 등)를 중심으로 한 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한다.

공연은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 혹은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고, 선착순 예약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숲속음악대 덩따쿵 모습.

/남원=김기두 기자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1차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23일까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은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이 안정적으로 후속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며,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기간에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에서 진행된 도내 예술단체(개인)의 기초 공연예술 분야 대관 공연으로, 대관료(설치, 리허설, 공연, 철수대관 등)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최대 90%(부가세 10% 제외) 지원된다.

오는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대관계약 증빙서류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공연장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단체) 단체증빙서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문예진흥팀(063-230-7440, 7442~744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순창 옥천골미술관서 ‘이적요 작가 초대전’ 개최

순창군이 12일부터 31일까지 옥천골 미술관 전시실에서 이적요 작가 초대전 ‘인연과 놀다’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철학과 의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전라북도 서양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적요 작가의 작품을 조망하기 위해서 기획됐으며 작가와 닮은 초상들, 이름 모를 여인을 그린 연작 등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시간의 얼굴’ 등 이번 전시회 작품의 특징은 캔버스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바탕 위에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실, 천 등 생활 재료를 바느질을 통하여 독특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주변에 익숙한 생활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한 독특한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순창군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개성 있는 화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적요 서양화 작가의 초대전을 보시면서 지친 일상속에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골미술관(063-650-1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 콘서트 14일 개최

푸르른 오월, 코로나19로 지친 군산시민의 모든날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일상의 활력, 음악 비타민’ 콘서트가 열린다.

군산시는 군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가 오는 14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쇼스타코비취 왈츠와 A-Ja A-ja Korea, 시립합창단의 남성이중창 〈꽃피는 날〉을 시작으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 바이러스〉, 〈El Cumbanchero〉 연주 등 대중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